

보도일시	2025. 05. 23. (금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대응위, 산업폐기물로 고통받는 지역 현안 청취

영남권 16개 대책위와 ‘산업폐기물의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처리를 위한 정책 협약’ 진행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3일(금), 경상북도 경주를 찾아 영남권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현장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진행된 경청투어는 기후위 위성곤 위원장과 임미애 수석부위원장(비례/국회의원), 경북·경남·대구·울산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 16개 단체가 참석했다.

또한, 김경숙 경북도의원, 이강희 경주시의원(기후위 경북위원장), 정경은 대구 수성구의원(기후위 대구위원장), 김형근 기후위 울산위원장 등 영남권 광역 및 기초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날 기후위는 경북·경남·대구·울산 지역에서 산업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을 비롯한 16개 대책위원회들과 만나 ▲농지에 무단 매립된 폐기물 ▲불법 소각 ▲유해 재활용 문제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생활환경 파괴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제 산업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정의와 생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기후위는 경북·경남·대구·울산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유해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지역 기반 감시·감독 체계 확립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끝/



<사진> 2025. 05. 23.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산업폐기물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처리를 위한 정책협약



<사진> 2025. 05. 23.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영남권 산업폐기물 분야 경청투어